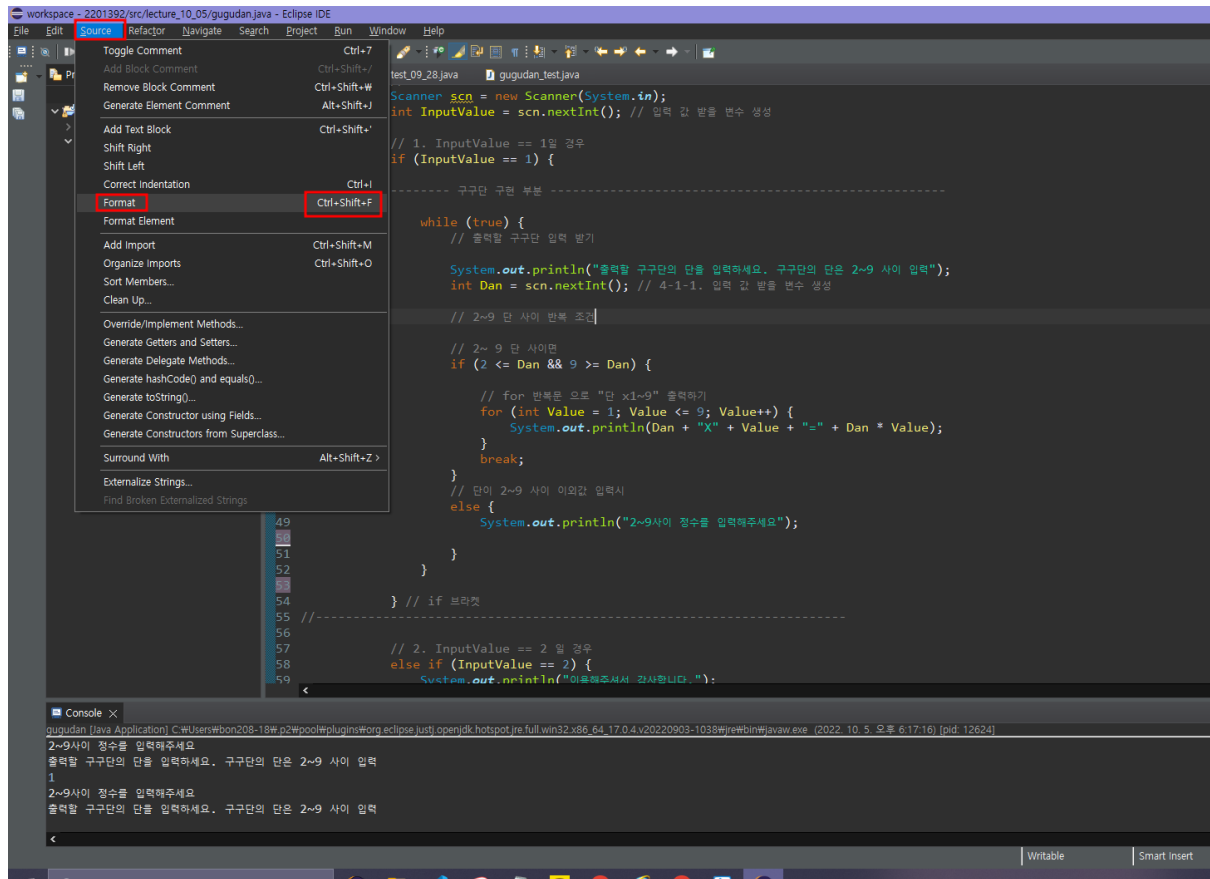


22. 10 .05 - 이항연산자

10. 05 자바수업

ctrl + shift + f ⇒ 자동 들여쓰기



or	and
	&&

연산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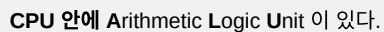
새로운 언어를 접할 때 연산자를 공부하는 관점

1. **기능별** 로 나눠서 (산술, 논리 등)
2. 연산자의 **우선순위**
3. **형의 갯수** (피연산자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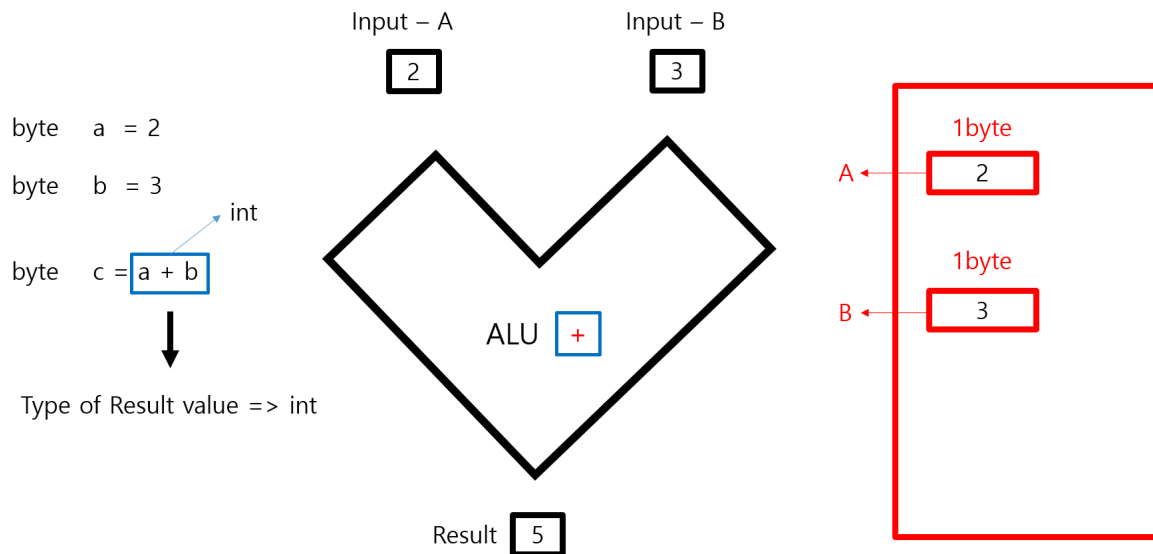
- 이항연산자는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피연산자의 타입을 일치시킨다!!

- byte + short → int + int → int
char + int → int + int → int
float + int → float + float → float
long + float → float + float → float
float + double → double + double → double

이항(二項)연산자 (피연산자 2개, 좌항과 우항의 값으로 이뤄져 있다)



-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**데이터**는 전부 **2진수 (0 또는 1)**로 **저장** 된다.
- 2진수로 저장되는 방식**이 **자료의 형태**에 따라 **틀려진다**.
 -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[**숫자** / **문자** / **불린**]
 - **숫자** (정수/ 실수), **문자**, **불린** (논리)에 따라 **비트 표현 방식이 틀리다**
 - 정수와 실수의 비트 표현 방식도 틀리다
- 자료형**이 다르면 **비트 연산을 할 수 없어서** 좌항과 우항의 자료형을 일치 시켜야 한다.
 - ALU는 비트 단위로 연산**을 한다 ⇒ **자료형의 비트 표기 방법이 같아야 한다**.
- 때문에 ⇒ **어떤규칙으로 해당 언어에서 이항연산자의 자료형을 일치를 시켜주는지 잘 알아야 한다**.



값은 실제로 작더라도(int 이하), 그 값을 퍼와서 ALU 메모리에 (Input - A, Input - B) 넣어야 한다.
Input - A, Input - B 도 내부적으로 메모리 공간이 있다(자료형, 크기).

ALU 안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의(내부 메모리의 값) 자료형은 3개다 일치 해야한다.

⇒ 피연산자 2개(이항연산자인 경우) 의 자료형과,

연산을하고 나온 결과 값을 담을 임시 메모리 공간의 자료형이 당연히 같아진다. (같은것 끼리 연산해서)

※ **ALU**는 **비트 단위로 연산** 을 한다 ⇒ **자료형의 비트 표기 방법이 같아야 한다.**

■ 정수 자료형에 대한 논의

✓ 자바의 4가지 정수 자료형

- byte, short, int, long
- 정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바이트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됨

✓ 작은 크기의 정수 저장에는 short? 아니면 int?

- CPU는 int형 데이터의 크기만 연산 가능
- 때문에 연산직전에 short형 데이터는 int형 데이터로 자동변환
- 변환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int를 선택한다!

✓ 그럼 short와 byte는 왜 필요한가?

- 연산보다 데이터의 양이 중요시 되는 상황도 존재!
- MP3 파일, 동영상 파일
- 데이터의 성격이 강하다면 short와 byte를 활용!

※ 정수(좌향) 과 실수(우향) 인 경우 →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일치 시킨다 ※

정수보다는 실수가 값의 표현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수가 우선권을 가져서
좌향 우향 전부 실수형으로 바꾼다.
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일치 시킨다

※ 대입 연산 시 , 좌향에 있는 자료형의 크기가 우향에있는 자료형 보다 작을 경우 ※

오버플로우나,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.

※ 변수일 때 ※

JVM에서 ALU를 설계 시 , ALU내부에 들어오는 값을 저장할 내부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

ALU 내부 메모리 공간도 자료형과 크기를 가진다 ⇒ 자료형과 크기도 맞춰야 한다

정수인 경우 2가지 [int형 (4 바이트) / long형 (8바이트)] 타입으로 분류 해 놓았다.

때문에 int 이하의 자료형은 전부 int형으로 집어 넣는다 ⇒ 크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 없기 때문!!!

※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가져 오면 크기가 있다 ※

ALU를 설계할 때 ALU에 들어오는 값을 저장할 메모리 공간이 있다.

⇒ 정수인 경우 JVM에서 2가지로 설정해 놓았다.

※ ALU 전처리 과정에서 이항 연산 시 ※

int 이하의 자료형은 전부 int형으로 집어 넣는다 ⇒ 크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 없기 때문!!!

- 1) int 이하의 자료형은 이항 연산시 무조건 -> int 형으로 전환
- 2) 자료형의 우선순위는 long > int (큰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으로 맞춘다)

ex) 메모리상의 값은 바이트 + 바이트를 하더라도 ALU에 집어 넣으면 각각의 값을 복사를 해서 집어 넣어야 하는데 이때 INT 이하의 자료형은 전부 INT로 컨버팅이 되어 집어 넣어 버린다. ⇒ 결과 값으로 INT형이 나온다.

대입연산자에서 우항에 있는 값을 좌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

우항은 INT 좌항은 Byte 인경우 **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.**



Q. int 보다 작은 값이 입력되는 경우

- 1) 이항연산자가 연산 시, 좌항 우항의 우선순위를 먼저 맞추나 ?
- 2) int 로 먼저 변환을 시켜 버리나?

⇒ JVM에서 전처리 과정(Pre-Processing) 을 거쳐 값이 입력 되자마자 int형으로 변경해 준다.

전처리 = 기본 반응이나 가공에 앞서 화학적 ·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예비적으로 하는 처리

```
byte a = 5
short b = 3
```

```
1) (Byte) (short)
long c = a + b => int형으로 전
2) (int) (int)
```

```
long c = long(a+b) // 이렇게 해야 오버플로
// 로우플러우 안생?
```

1. 먼저 계산

byte c = (byte) (a + b);

2. byte로 형변환

3. 대입시킨다.

명시적(강제)형 변환 [Type casting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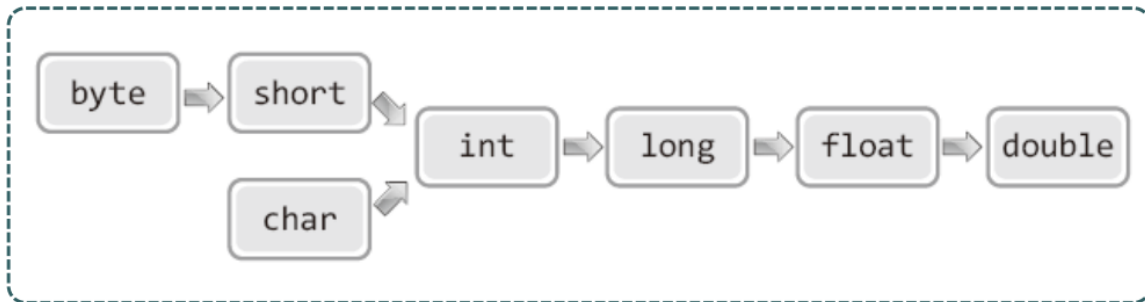
사용 방법 : (변경하고자 하는 자료형) 피연산자

(int) 3.0f

■ 자동 형 변환(Implicit Conversion)

JAVA^로
강한 정적 타입

✓ 자동 형 변환 규칙



`double num2=3.5f+12;` 12가 12f로 자동 형 변환

문자형 `char`(캐릭터) 도 결국 정수로 저장됨 (2Byte)

`char` 과 `char`을 이항연산 한다면 `int`형이 나온다.

상수가 이항연산 처리가 되면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=> 상수 간에 연산은 문제가 없다

✓ 자바의 문자 표현

- 문자 하나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유니코드 기반으로 표현
-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 집합
-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표현한다.
- 문자는 `char`형 변수에 저장한다. 저장 시 실제로는 유니코드 값 저장

오른쪽의 두 코드는
사실상 동일한 코드

```
char ch1='A';  
char ch2='한';
```



변환 발생

```
char ch1=65;           // 65는 16진수로 0x41  
char ch2=54620;        // 54620은 16진수로 0xD55C
```

8bits -> is used to be presented data into bites

$2^8 \rightarrow 256 \rightarrow 0 \sim 255$

8비트중에서 1비트를 +,-를 담고 나머지 7비트가 남는다 -128 ~ 127

-0, 0+ 두개가 나와서 $2^7 - 1$

byte c = 127 or 126+1 ; 는 전처리 과정에서 byte로 바꿔 버림

상수는 값이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. 상수라

byte c = 128 이상 오류 (-128 ~ 127)

char	String
문자 형	문자열
'b '	" betty"

char 문자 형 → 비트로 저장되는데 정수로 표현한다

String 을 사용

char 를 배열 형식으로 사용



문자를 비트로 저장하는 것은 "정수로 저장한다"

⇒ 유니코드 테이블 보고 해당 문자에 해당하는 정수 값을 이용한다

때문에 일반적인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.

자료형의 우선순위는 항상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숫자를 나타낸다

int 보다 크기가 작은 타입은 int로 변환한다.

JVM ALU 변수를 설정할 때

정수 파트에서 인트, 롱 으로 나뉘어서 만들어 졌다. (4바이트 8바이트)

인트 이하의 자료형은 전부 인트형으로 집어 넣는다

때문에 결과 값은 인트 이상의 값이 무조건 나온다 .

```
byte a = 10;
byte b = 20;
byte c = a + b;
```

```
byte a = 10; // ALU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면 Int 로 바뀐다.
byte b = 20; // ALU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면 Int 로 바뀐다.
byte c = a + b; // 이항 연산을 하게 되면 int + int 로 바뀐다
=>
```

```
System.out.println( c );
```

```
byte a = 2
byte b = 3
byte c = a+b // 출력이 되지 않고 c는 오류가 난다
```

- (1) 오류가 나는 이유
-> a+b 는 int이지만 c는 byte이기 때문에
-> 자료형이 int와 같거나 int보다 높은 long이어야 한다.

- (2) a+b가 byte가 아니고 int인 이유
-> 자료형이 int 이하이면 그 자료형을 int로 변환

- (3) int 이하이면 자료형을 int로 변환하는 이유
-> JVM에서 ALU 설정 시 4byte와 8byte만 취급하기 때문에
-> int 이하인 자료형은 다 int로 취급

```
// 명시적(강제)형 변환 -> type casting
byte a = 2
byte b = 3

byte c = (byte)(a+b)

// 자료형 숫자의 범위
// 8bits 2^8 -> 256 -> 0 ~ 255
// -128 ~ 127

byte = 128; -> 오류
byte = 126+2; -> 오류
byte = 127; -> 오류가 나지 않음
```

```
// (1) 변수, 정수형에서 이항 연산을 처리하는 규칙
// 1) int 이하의 자료형은 무조건 -> int 형으로 변환
// 2) 자료형의 우선 순위는 long > int
byte a = 2;
byte b = 3;
int c = (int)(a+b);
-----
// (2) 변수, 실수
// 1) 자료형의 우선 순위 double > float
// -> 자바의 실수 타입의 기본 처리는 double
float a = 3.0f; // f를 사용하는 이유 double과 구분
double b = 4.0;
float c = a+b;
* 오류 나는 이유
-> float보다 double의 바이트가 더 높기 때문에 오류 발생
-----
// (3) 변수, 정수 <-> 실수
// 1) 실수 > 정수
// -> 수의 범위는 지수
float a = 3.0f;
int b = 4;
double c = a + b;
-> a는 float이고 b는 int이다 자료형이 다를 시 수의 범위가 더 높은 것으로 변환
-> b는 int 정수는 실수보다 작기 때문에 b의 자료형은 float가 됨
-> double은 float 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출력 가능
```

```
// 문자 vs 문자열
// 문자: 1글자 -> 'a' 문자
// 문자열: 1글자 이상 -> "a" 문자열
// char(정수) -> 문자형 / 아스키코드
// 문자열 -> String, char array [배열 형식]
-----
char a = 97; -> a 출력
char b = 2;
char c = a+b;
-----
char a = 97;
a++; -> b 출력
-----
String bar = "11";

system.out.println(bar + 2.3); // 112.3 출력
-> 자료형이 다를 시 문자열로 변환해서 붙인다.
-> 문자열이 우선 순위가 가장 빠르다.
-> /, *, - 는 불가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가능
```

and 이항

not 단항

より強いほうが勝つ

문자열 > 숫자 必ず文字列が優先

자바에서는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char를 2바이트로 사용한다.

변수는 크게 2 종류

primitive variable

reference variable ⇒ (String)